

# 大坨頭文化에 대한 一考察

卜 箕 大 \*

## 목 차

- I. 머리 말
- II. 연구사적검토
- III. 분포범위와 지리적환경
- IV. 문화요소의 특징
- V. 문화기원 및 연대
- VI. 문화교류 관계
- VII. 맺 음 말

## < 요 약 >

필자는 이 글에서 大坨頭文化에 관한 소개와 동시에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 문화는 어느 문화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문화로 볼 수 있다. 즉 京津지구와 張家口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로 당지의 후기 신석기문화의 전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주변지역 문화영향을 흡수 발전시키면서 발전한 문화이다. 연대는 기원전 22세기 시작하여, 기원전 14세기 전후하여 결속된 문화이다.

이 문화의 전체적인 문화 요소를 볼 때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어 연구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화 요소들이 이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 요소의 복잡성은 이 문화 요소가 처음 발견되면서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고학의 기본 이론과 인류학적인 이론에 대입해볼 때 하나의 독립문화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전체적인 문화 성격을 볼 때 이 문화는 지역적으로 太行山이동쪽에서 발전하면서, 그 동북으로는 遼西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서쪽으로는 中原문화권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지역간의 교차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 中原세력이었던 商나라가 현재의 北京지역까지 세력권이었던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시기에는 中原세력은 아직 京津지구까지는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滿洲지역 고대사와 결부시켜 볼 때 더욱 중요하다. 즉 당시 滿洲지역에 어떠한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 문화는 어떠한 민족의 문화였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시 大坨頭文化의 이웃 지역인 遼西지역에서 이 시기에 발달한 청동기시대문화는 夏家店下層文化이다.

이 夏家店下層文化는 지역적으로 遼西지역에서 발전한 문화이지만, 이 문화는 주변 지역의 동시대 청동기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문화이다. 大坨頭文化에서도 이 문화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을 본문에서 밝힌 바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卜箕은 大坨頭文化를 당지의 전통적인 신석기문화를 계승하면서 遼西쪽의 夏家店下層文化인 東夷계통 문화, 그리고 中原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문화로 보았다.

이는 전체적인 문화 요소와 그 성격을 볼 때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문화는 단순한 先史 考古文化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더더욱 중요한 지역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坨頭文化의 이해는 전체 동북아시아의 고대문화와 고대사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화이다.

[주제어] 大坨頭文化, 夏家店下層文化, 雪山文化, 太行山, 二里岡文化

\*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학예연구원

## I. 머리말

渤海灣의 서편, 즉 지금의 京津지역을<sup>1)</sup> 포함한 河北省일대에 신석기문화가 종료되고 나서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이 논쟁들은 청동기시대문화의 존재 유무가 아니고 어떠한 성격의 청동기시대 문화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쟁의 중점은 이 지역 문화가 독립된 문화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귀속되는 한 “類型”이나 하는 것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는 곧 이 문화의 기원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는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大坨頭文化”가 발전한 것으로 결론을 보게되었다.

이 문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가 위치하는 지역적인 특색이다. 즉 지역적으로 中原문화권과 山東지역 문화권, 그리고 滿洲지역 문화권에 둘러 쌓인 지역으로 그 복합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단순하게 문화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문제와도 관련시켜 볼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위에서 말한 지역들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滿洲지역과 中原지역의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임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이 문화에 대하여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는 동시에 필자의 견해를 나름대로 제기해보기로 한다.

## II. 연구사적 검토

이 문화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64년 河北省 大廣縣 大坨頭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이다.<sup>2)</sup>

이 유적에서 긴둥근꼴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기물로는 시루술, 세가랑이술, 대야, 잔, 대접 등 여러 취사기와 식기들이 그리고 가락바퀴 등이 발견되었다. 재질은 주로 모래질이었고 승문, 줄무늬, 세모무늬 등이다.

구체적으로 그릇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루술은 술부분의 몸통은 계란형을 이루고 시루부분은 비스듬히 바라진 형태를 이루고 가랑이의 깊이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가랑이술은 전체적으로 항아리형을 이루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어깨 부분이 꺾인 세가랑이

1) 중국에서는 큰 지역에 대한 별도로 부르는 약칭이었다. “京津”지역이라는 지역은 北京과 天津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2) 天津市文化局考古發掘隊, 1966-1, 「河北大廠回族自治縣大坨頭遺址試掘簡報」, 『考古』, 科學出版社, 8~11쪽.

술, 그리고 통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접 역시 각선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시기는 몸체가 사선형과 곡선형이고 개중에는 겹 입술이 있었다.

돌연장은 긴네모꼴 돌칼, 끌,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청동기로는 양쪽에 홈이 파인 양날개식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물 특징은 그후 이 지역에서 계속되는 조사 발굴에서 하나의 표지적인 역학을 하였다.

1974년 北京市 房山 琉璃河公社 유가점촌 남쪽에서 두 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이 발굴에서 위에서 말한 굽대야, 존형세가랑이술, 그리고 구리반지, 구리 귀걸이 등이 발견되었다. 발굴 당시 발굴자들은 이 무덤을 夏家店下層文化로 구분하였다.<sup>3)</sup>

1972년 河北省 盧龍縣 關各庄유적을 발굴하였는데,<sup>4)</sup> 여기서는 완전한 유물들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조각들로 볼 때 大坨頭에서 발견한 “類”의 기물들과 비슷한 기물들이 많았다. 이런 기물들은 灤河부근에서 볼 수 있는 大坨頭類型的 요소들이었다. 질그릇 이외에 많은 뼈연장을 볼 수 있었는데, 칼, 송곳,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그후 京津지역과 河北省북부 지역인 壺流河유역과 張家口일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물들이 발견되었고, 남쪽으로는 拒馬河, 永定河 일대에서도 위에서 말한 특징을 갖는 문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화 요소들은 지역적으로 京津지역의 서쪽인 太行山이서쪽의 中原지역이나 山東지역, 그리고 滿州지역의 遼西지역의 문화와는 거시적으로 볼 때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화 요소 중에 부분적으로 주변지역과 관련이 깊어 전체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 견해들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이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하였던 것은 이 문화가 灤河와 燕山山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夏家店下層文化와의 관계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갈래 의견으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립적인 문화인 “大坨頭文化” 혹은 “圍坊2期文化”로<sup>5)</sup>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夏家店下層文化의 한 지방유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두 견해 중 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은 夏家店下層文化의 한 지방유형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 문화 요소가 처음 발견되기 전 遼西지역에서 夏家店下層文化가 발견 조사되

3) 北京市文物管理處·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琉璃河考古工作隊·房山縣文教局, 1976-1, 「北京琉璃河夏家店下層文化墓葬」, 『考古』, 科學出版社, 59-60쪽.

4)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省盧龍縣東關各庄遺址」, 『考古』 1985-11, 980-989쪽.

5) “圍坊2期文化”라는 말은 薊縣의 圍坊유적을 발굴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 유적은 유물의 특성상 3 시기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1기는 신석기시대문화, 2기는 전기 청동기시대문화, 3기는 후기 청동기시대문화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2기는 大坨頭文化유물과 비슷하며, 3기는 張家園上層文化와 비슷한 유형이다.

면서<sup>6)</sup> 볼 수 있었던 몇몇 유사한 기물들이 이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夏家店下層文化로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최초로 제기한 학자는 李經漢이다. 그는 이 문화를 夏家店下層文化중 “燕山類型”으로 인식하였다.<sup>7)</sup> 그 특징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이 지역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제기하였다.

鄒衡은 李經漢과 같은 인식을 하였지만, 李經漢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燕山類型”으로 설명하였다. 즉 문화 특징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는 李經漢과 비슷하지만 이 문화를 北方文化로 완전하게 인식을 하였다.<sup>8)</sup>

張忠培 등은 이 夏家店下層文化를 논하면서 두 지역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두 유형중에 이 지역을 “海河北界區遺存”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말은 渤海灣 서북쪽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지역설정을 하였다.<sup>9)</sup>

李伯謙은 전체적인 夏家店下層文化를 논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夏家店下層文化에 귀속시켜 나누면서 북쪽인 張家口일대를 “壺流河類型” 京津지구를 “大坨頭類型”으로 나누었다.<sup>10)</sup> 그러면서 구체적인 하나 하나를 고증하였는데 가장 큰 근거가 “존형격”과 “채회도”였다.

이러한 흐름은 이 문화를 夏家店下層文化의 한 유형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질그릇이 가장 큰 근거였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尊型 세가랑이 술과 어깨적인 세가랑이술이 발견된다. 또한 彩繪陶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위의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실 “大坨頭文化” 독립문화론을 계속하여 주장한 학자는 韓嘉谷이다.<sup>11)</sup> 그는 위서 말한 李經漢이나 鄒衡, 그리고 李伯謙의 주장들을 일면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문화 현상을 볼 때는 같은 문화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卜工的 견해를 볼 수 있다. 그는 燕山 남북지역의 질그릇을 비교 분석하면서 서로

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發掘隊, 1961-2, 「內蒙古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簡報」, 『考古』, 科學出版社, 77~81쪽.

7) 李經漢, 1979,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 第1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63~170쪽.

8) 鄒衡, 1980,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263~266쪽.

9) 張忠培·孔哲生·張文軍·陣雍, 1987, 「夏家店下層文化」, 『考古學文化論集』-蘇秉琦主編-, 文物出版社, 58~78쪽.

10) 李伯謙, 1990, [論夏家店下層文化], {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三十年}, (1952-1982), 文物出版社, 150~169쪽.

11) 韓嘉谷, 1981, [京津地區商周時期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3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220~229쪽.

의 차이점을 근거로 하여 두 지역의 문화는 한 문화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한다.<sup>12)</sup> 韓嘉谷이나 卜工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두 지역에 모두 삼족기가 존재하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燕山이북의 遼西지역은 “尊”과 “존형세가랑이술”이 주로 발달하면서 일부 어깨적인 세가랑이술이 발견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燕山이남지역은 아가리가 약간 바라지고 조인 듯한 목과 몸통이 계란형을 한 특징을 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어깨 격인 세가랑이술 역시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彩繪陶는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지역의 문화는 같은 문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전체적인 문화 요소를 고려해볼 때 후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 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大坨頭文化 요소를 볼 때 가장 많은 요소들은 당지에서 내려오는 문화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 Ⅲ. 분포범위와 지리적 환경

이 문화의 요소가 처음 학계에 소개된 후로 적지 않은 유적들이 발견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大坨頭<sup>13)</sup> 昌平 雪山,<sup>14)</sup> 薊縣 張家園,<sup>15)</sup> 圍坊,<sup>16)</sup> 牛道口,<sup>17)</sup> 蔚縣 三關·庄窠,<sup>18)</sup> 易縣 富位·下岳各庄,<sup>19)</sup> 房山 琉璃河,<sup>20)</sup> 盧龍縣 東關各庄,<sup>21)</sup> 唐山 大城山,<sup>22)</sup> 古冶<sup>23)</sup> 등이 대표적인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燕山남쪽으로 天津지구와 河北省, 內蒙古 東

12) 卜工, 1989, [燕山地區夏商時期的陶甬譜系], {北方文物}, 第2期, 30~38쪽.

13) 앞글 2) 참조

14) 이 유적은 1950년대 발굴이 되었지만 발굴자의 타계로 인하여 그 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학자들이 발굴 자료를 조금씩 인용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인용함을 밝혀둔다.

北京市文物研究所, 1990年, {北京考古四十年}, 北京燕山出版社, 22~28쪽.

15) 韓嘉谷·紀烈敏, 「薊縣張家園遺址青銅時代文化遺存綜述」『考古』, 1993-4, 355~364쪽.

16) 天津市文物管理處考古隊, 1983-10, 「天津薊縣圍坊遺址發掘報告」, 『考古』, 科學出版社.

17) 天津市歷史博物館考古隊·寶坻縣文化館, 「天津寶坻縣牛道口遺址調查發掘簡報」『考古』, 1991-7, 576~589쪽.

18) 張家口考古隊, 1982-4, 「蔚縣考古紀略」, 『考古與文物』, 10~14쪽.

19) 拒馬河考古隊, 1988-4, 「河北易縣涑水古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科學出版社, 432~440쪽.

20) 北京市文物管理處·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琉璃河考古工作隊·房山縣文教局, 1976-1, 「北京琉璃河夏家店下層文化墓葬」, 科學出版社, 59~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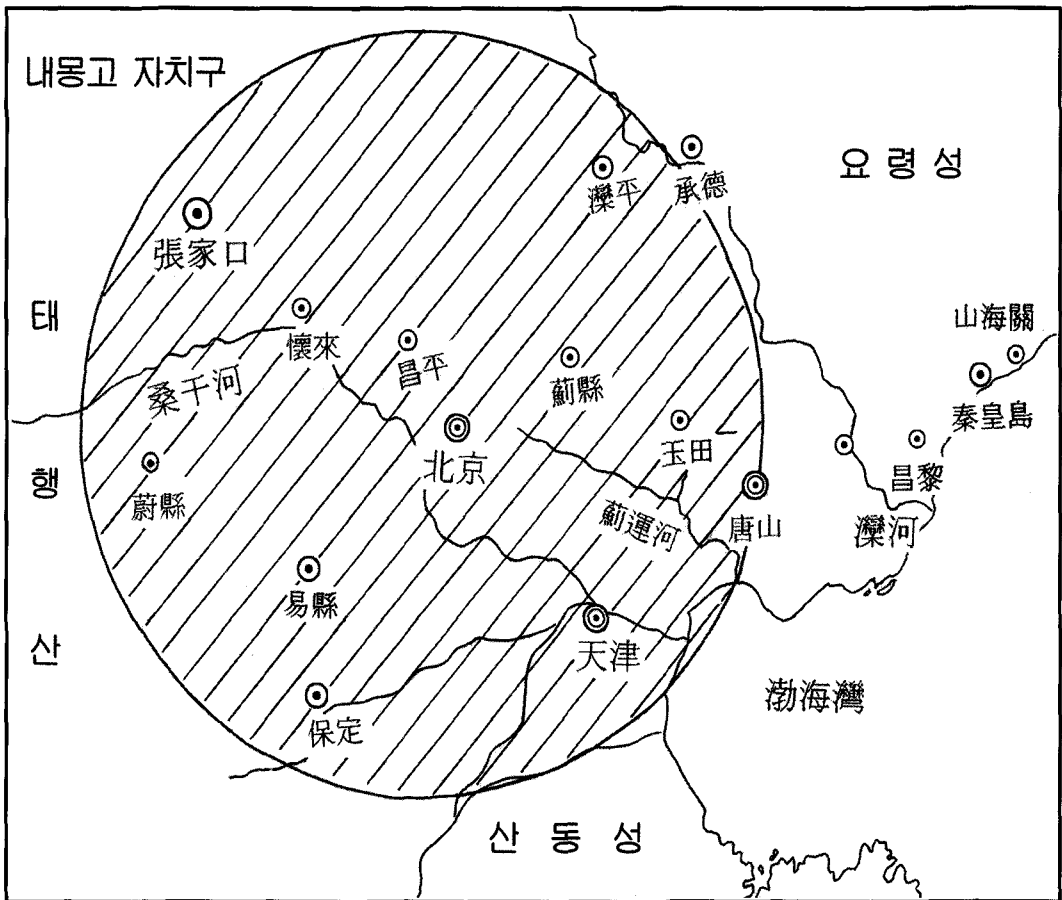
21) 河北省文物研究所, 1985-11, 「河北盧龍縣東關各庄遺址」, 『考古』, 科學出版社, 980~984쪽.

22) 河北省文物管理委員會, 1959-4, 「河北唐山市大成山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科學出版社, 17~34쪽.

23) 河北省文物研究所, 1984-9, [唐山市古冶商代遺址], {考古}, 769~892쪽.

南部, 그리고 北京지역을 아우른다. 분포 범위의 자연 환경은 동으로는 渤海灣을 접하고 있고, 서로는 河北省 동부지역에 이른다. 南麓은 黃河하구 유역에 이르며, 북으로는 黃河유역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범위 안의 지형은 평평한 들판에 간혹 노년성 산들이 분포한다. 이 지역을 흐르는 물줄기는 북으로는 灤河가 서북에서 시작하여 東南으로 흐르고, 남쪽으로는 永定河와 潮伯河, 그리고 黃河가 渤海灣으로 들어간다.

기후는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가 서로 교차하는 지역으로 온난한 기후대에 속한다.



지도1. 大坨頭文化 분포지역

## IV. 문화 요소의 특징

### 1. 유적

#### 1) 집자리

張家園유적에서 밝혀진 집자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면은 기본적으로 타원형인데, 출입구 쪽과 거실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거의가 집안으로 출입하는 門道가 있다. 어떤 경우는 출입구 부분은 전체 집 길이의 1/4의 길이 정도의 긴 것도 있다. 집안은 사용 처에 따라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바닥은 풀을 갠 진흙으로 깔아 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집 둘레에 기둥을 세웠던 구멍들이 남아 있다. 벽은 돌로 쌓은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1)

#### 2) 무덤

무덤은 주로 움무덤이 많았다. 평면은 긴 네모꼴이고 깊지는 않았다. 특별한 장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검을 묻는 방법은 곧게 누운 묻음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팔과 다리를 “X”자형으로 묻은 무덤들이었다. 껌묻거리는 특별한 형식은 없었다. 주로 질그릇과 金製 장식품 그리고 소형 청동기들이 발견되었다.(그림2)

#### 3) 질그릇 가마

질그릇을 굽는 가마가 발견되었다. 이런 유적은 다른 문화권이나 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유적이다. 2기가 발견되었는데, 평면이 각각 정사각형과 원형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모습으로 완전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잘 남았다. 가마는 삼중으로 둘레를 둘렀고, 중앙에 1개, 둘레에 6개씩의 모두 7개의 火門이 있었다.(그림3)

### 2. 유물

유물은 여타의 청동기시대문화와 같이 공통적으로 질그릇, 돌연장, 뼈연장, 약간의 청동기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특징적인 것은 질그릇이다.

#### 1) 질그릇

질그릇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류는 세가랑이술, 시루술, 대야, 자백이, 항아리, 독, 손잡이 접시, 세발술 등이 주류를 이룬다. 재질은 주로 모래질이고, 그 다음으로 진흙질이다. 주로 손으로 만들었고 일부에

서 느린 물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빗깔은 주로 갈색계통이 많은데,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마 안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무늬는 주로 끈무늬가 많았다. 일부 기물에서 채회도가 보이는데 붉은 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무늬는 구름무늬, 새무늬, 짐승무늬가 가장 많았다. 세가랑이술의 특징은 전체 비율을 볼 때 가랑이가 낮고 다리가 짧으며 발끝이 뾰족한 것이 가장 많다. 많지는 않지만 발끝이 뾰족한 것도 있었다. 무늬를 새길 때 주로 몸통부분에 새기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체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4)

## 2) 돌연장 및 뼈연장

주로 간 연장들이 많았고 다음으로 타제석기들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종류는 도끼, 끌, 자귀, 낫, 그물추, 장식품, 화살촉 등이 많이 보였다. 뼈 연장은 주로 갈아서 만든 것이 많았다. 송곳, 비녀, 삽, 장식품이 많았다.(그림5, 6)

## 3) 금속기

금속기로는 청동기와 금제 장식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동기로는 작은칼과 그리고 바늘로 보이는 공구, 그리고 용수철 모양의 장식품이 있었다. 또한 溶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지에서 주조했던 것이 분명하다. 나팔형 금귀거리가 발견되었다.(그림7)

# V. 문화기원 및 연대

## 1. 문화기원

이 문화가 청동기시대의 문화로 자리 매김 되면서 그 기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문화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적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원인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로 보아 그 기원의 실마리는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지의 선대문화를 고려해볼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龍山文化계통이다.

龍山文化시기에는 이미 三足器가 완연하게 발전을 하였다. 그 형태는 가랑이가 높고 각이 좁으며 다리가 항아리형으로 비대한 것을 볼 수 가있다. 더불어 몸통도 항아리형으로 비대하여 아가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비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몸통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화가 직접 大坨頭文化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삼족기가 靑山2期文化의 동이<sup>24)</sup>에 삼족기가 결합되면서 통형 삼족기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4) 앞글 14), 25쪽 그림 1, 2참조.



雪山文化에서 후기 龍山文化 질그릇과 초기 大坨頭文化 질그릇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 증명된다. 이렇게 볼 때 이 문화의 연원은 雪山2期文化를 주축으로 하여 龍山文化 요소가 결합되어 발전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비울적으로 보면 큰 비율은 아니지만 夏家店下層文化의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尊과 尊型鬲은 이 문화의 초기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된 요소는 아니지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연대

이 문화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문화 층위 변화와 유물의 변환 과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지층관계를 고려해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雪山유적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문화가 雪山2期文化를 계승하였다면 雪山2期文化에 가장 가까운 질그릇 형태와 지층관계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을 볼 때 지층 표식이 있는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층위관계는 알 수가 없다. 단 기물의 변화과정을 볼 때 측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두 방면에서 고찰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조사된 이 문화의 이른 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층위관계의 유물과 결합시켜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圍坊유적 T2③:9,<sup>25)</sup> T3 ③:13<sup>26)</sup> 그리고 張家園79T1③:3에서<sup>27)</sup> 발견된 세가랑이술과 雪山H109:7의<sup>28)</sup> 세가랑이술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圍坊과 張家園 지층은 이 문화의 층위 관계를 고려해볼 때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정을 한다면, 雪山유적에서 발견된 세가랑이술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층위 관계로 연결시킨다면 雪山2期 층위와 이 문화층위는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준형격의 출현이다. 이 기물은 夏家店下層文化의 전형적인 기물이다. 이 기물이 大坨頭文化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변화 과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기물은 蔚縣 三關, 그리고 大坨頭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大坨頭文化의 상한 연대는 기원전 22세기를 전후로 볼 수 있다.

下限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한연대는 당지의 표식적인 유적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표식적인 유적은 北京 琉璃河 지역의 초기 西周 유적에서도 볼 수 있다. 아가리가 평평해지고, 목이 조여지고, 몸통은 곧은 형태로 변하며 가랑이가 거의 소실된 듯한 세가랑이술이

25) 韓嘉谷, 1989, [大坨頭文化陶器群淺析] {中國考古學第7次年論文集} 文物出版社, 297쪽 그림A1 왼쪽 참조.

26) 앞글 25), 그림1 B1 오른쪽 참조.

27) 앞글 25), 그림B1 왼쪽 참조.

28) 앞글 25), 그림1 A1 왼쪽 참조.

주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太行山 이서쪽에서 商이 멸망하고 西周가 건국되면서 나타나는 세가랑이슬과 궤의 특징이다.<sup>29)</sup>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기보다는 大坨頭文化의 하한은 빨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보다 빠른 문화 요소의 변화는 화변격이 나타나는 시기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시기는 圃坊上層文化에서 부터 시작된다. 圃坊上層文化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大坨頭文化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花邊鬲”이라는 독특한 덧띠무늬의 등장이다. 이 무늬는 內蒙古 중부지역의 朱開溝文化에서 시작되어 그 전파 지역이 매우 광범위했던 문화요소이다.<sup>30)</sup> 이러한 형식이 나타나는 문화시기가 圃坊上層文化시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韓嘉谷 역시 지적한바 있다.<sup>31)</sup> 동시에 滿洲지역의 魏營子文化에서도 이러한 花邊鬲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32)</sup> 이 문화의 上限 연대는 기원전 14세기 전후한 시기로 밝혀졌는데,<sup>33)</sup> 이 문화와 圃坊上層文化의 기물을 비교해볼 때 서로 유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연대 또한 동일한 연대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고려해본다면 大坨頭文化의 하한은 기원전 14세기 전후가 될 것이다. 또한 北京 琉璃河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夏家店下層文化의 후기에 보이는 尊型鬲과<sup>34)</sup> 二里岡文化 후기의 기물인 簋가 출토되는<sup>35)</sup> 것으로 봐서 위에서 말한 花邊鬲의 연대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연대는 기원전 14세기 전후한 시기로 봐야 할 것이다. (표1 대타두문화 방사성 연대측정표 참조)

## VI. 문화교류 관계

서론에서도 말을 하였지만 이 문화의 특징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어려운 점은 주변 문화의 영향이 큰데 있다. 그러므로 주변 문화의 관계를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문화보다도 비중이 큰 것은 夏家店下層文化와 太行山이서지역의 문화인 二里頭文化와 二里岡文化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 1. 夏家店下層文化와의 관계

29) 北京市文物研究所, 1995, 『琉璃河西周燕國墓地』, 文物出版社, 243쪽 그림 147중 제1기 IM26:1 및 IM26:2 참조.

30)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鄂爾多斯博物館, 2000, 『朱開溝』, 文物出版社, 125~277쪽 참조.

31) 앞글, 11) 223쪽.

32)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179~218쪽 참조.

33) 복기대 위글, 205~206쪽.

34) 앞글 20), 그림1.

35) 앞 글 20), 그림 3,4.

연번	단위	편호	방사성연대측정표	교정연대	비고
1	蔚縣 三關	S031002 WB82-40 목 탄	BC1710-BC1610	BC2193-BC1 680	반쇠기 5730년
2	蔚縣 三關	S031002 WB84-18 목 탄	BC1325-BC1230	BC1525-BC1 403	"
3	蔚縣 三關	S031002 ZK84-2016 인 골	BC1295-BC1200	BC1520-BC1 315	"
4	蔚縣 三關	S031002 ZK-2017 인 골	BC1305-BC1210	BC1519-BC1 329	"
5	蔚縣 前堡	S031003 WB82-41 목 탄	BC2005-BC1890	BC2464-BC2 144	"
6	蔚縣 前堡	S031003 WB82-42 목 탄	BC1290-BC1200	BC1525-BC1 327	"
7	蔚縣 前堡	S031003 ZK-2015 인 골	BC1485-BC1390	BC1880-BC1 440	"
8	蔚縣 庄窠	S031004 BK79099 목 탄	BC1990-BC1880	BC2460-BC2 144	"
9	蔚縣 庄窠	S031004 WB81-46	BC1335-BC1240	BC1525-BC1 413	"

출처 : 『中国 考古學中 碳十四年 年代 数据集』 1965~1991년, 『文物出版社, 1991년』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夏家店下層文化와 大坨頭文化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大坨頭文化를 夏家店下層文化의 한 유형으로 볼 정도로 유사성을 많이 갖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화의 비교는 서로 독립적인 문화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글 2장 연구사적 검토에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sup>36)</sup>

먼저 유적 관계를 살펴보자.

첫째, 무덤의 경우 大坨頭文化는 주로 움무덤이고 특별한 장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夏家店下層文化는 움무덤도 있지만 장구가 많이 쓰였고, 무덤내에 壁龕

36) 이 글에서 夏家店下層文化의 전체적인 특징을 논하는 데는 지면상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제시함으로 夏家店下層文化의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복기대, 2002, 「夏家店下層文化」,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15~100쪽.

이 존재하는 것과 二層台무덤도 발견되었다. 이로 볼 때 두 지역의 무덤 양식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집자리를 보면 大坨頭文化는 출입구가 길며, 집안에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사용하거나 곁담을 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夏家店下層文化의 집은 출입구가 짧으며 집안의 사용처가 분명히 나누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건축의 경우 곁담을 쌓기도 하고, 벽돌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어떤 경우의 집은 집안에 壁龕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문화지역의 유적 특징을 비교해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물을 살펴보자.

기실 두 문화를 같은 문화로 보는데 있어서 가장 큰 근거는 이 지역에서 존과 존형격(그림 4. 3, 4)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발견되는 기물을 볼 때 이 지역의 특징이 배인 변형된 기물이 아니라 夏家店下層文化의 전형적인 기물이 그대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화를 한 문화권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존이나 존형격보다는 당지의 특징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수량이나 시대적 연속성을 이어 가면서 꾸준하게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세가랑이술은 보면 夏家店下層文化의 것은 몸체가 향아리형인 것이 많은데, 大坨頭文化에서는 향아리형이 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청동기 방면에서 볼 때, 팔지 형식은 두 문화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보이지만, 나팔형 귀걸이는 이 두 문화 이외 지역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팔형 귀걸이의 경우는 두 문화의 고유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두 방면에서 비교해본 결과 두 문화는 같은 계통의 문화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인접한 지역에서 교류 관계로 봐야 할 것이다.

## 2. 太行山以西지역과의 관계

太行山이서쪽은 당시에는 二里頭文化와 그 뒤를 이어 二里岡文化가 발전한다.<sup>37)</sup> 이 문화들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夏와 商의 시기이다. 두 시기의 문화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승성을 갖는 문화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는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준 문화이기도하다. 大坨頭文化와 직접적인 관계를 주고 받은 문화는 이 중에 후자인 二里岡

37) 이 지역 문화는 그 區系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하나의 축인 “二里頭文化”와 “二里岡文化”로 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축을 이룬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소개하여 각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鄒衡, 1980,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文化가 더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화에서 보이는 향아리형 질그릇은 太行山이서쪽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향아리형 질그릇은 先商부터 商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양식이다. 그러므로 大坨頭文化에서 보이는 향아리형 질그릇은 太行山 서쪽의 양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琉璃河 유적 무덤에서 보이는 簋역시 商의 전통적인 유물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두 기물은 확실하게 太行山서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中原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靑銅 容器나 甲骨文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의 문화 교류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한 두 지역과 비교지만 이로써 大坨頭文化의 문화 복합성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정치적인 영역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의 교류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太行山이서쪽과의 관계보다는 滿州지역과 관계가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北京지역의 中原文化권과 관계가 깊다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Ⅶ. 맺음말

위에서 필자는 大坨頭文化에 관하여 소개와 동시에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 문화는 어느 문화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문화이다. 즉 당지의 후기 신석기문화의 전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주변 지역 문화 영향을 흡수 발전시키면서 발전한 문화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화 요소를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복잡한 문화 요소들이 이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화 성격을 볼 때 이 문화는 지역적으로 太行山이동쪽에서 발전하면서 동북으로는 遼西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서쪽으로는 中原文化권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지역간의 교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역사에 있어서 商시기부터 현재의 北京지역까지 세력권이었던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역사의 夏, 商시기에는 중국 세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滿洲지역 고대사와 결부시켜 볼 때 더욱 중요하다. 卜工은 이 문화는 滿州쪽의 東夷계통과<sup>38)</sup> 中原지역의 문화가

38) 卜工이 말하는 “東夷”라는 개념은 필자의 東夷 개념과는 다른 것을 밝혀둔다. 卜工의 東夷 개념은 중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滿州지역 고대문화민들에 대한 통칭이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을 해 본다면 東夷의 개념은 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복공의 견해를 인용함에 있어서 원전 인용에 충실할 것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함을 밝혀둔다.

결합된 문화로 보았는데<sup>39)</sup> 이는 전체적인 문화 성격을 볼 때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는 단순한 考古文化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중요한 지역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전체적인 문화를 깊이 다루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나 여러 학자들의 비판과 관심을 바란다.

---

39) 앞글 12), 37쪽.

## A study in the Datuotou Culture

Bock, Gi-Dae

The Datuotou culture is a bronze age culture in the Jing and Jin region dating from the twenty-second century to the fifteenth century B.C. As an independent culture, it succeeded the last Neolithic tradition of the region and absorbed the neighboring local cultures. However, because of its mixed nature,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ulture. In general, the Datuotou culture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onze age cultures both in Liaoxi and the Central Plai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al aspect of the region, rather than understanding it only as a local culture.

[Key Word] Datuotou Culture, Under Xiajiadien Culture, MT.xue Culture, M.T Taiheng, Er li gang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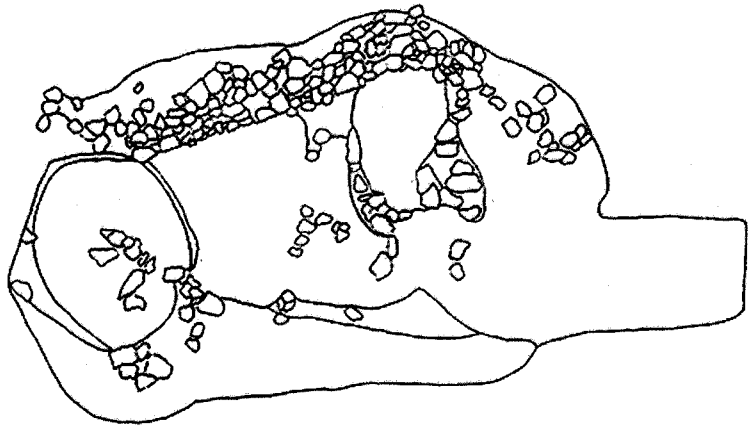


그림1. 대타두문화 집자리 그림(그림축적부동)  
장가원F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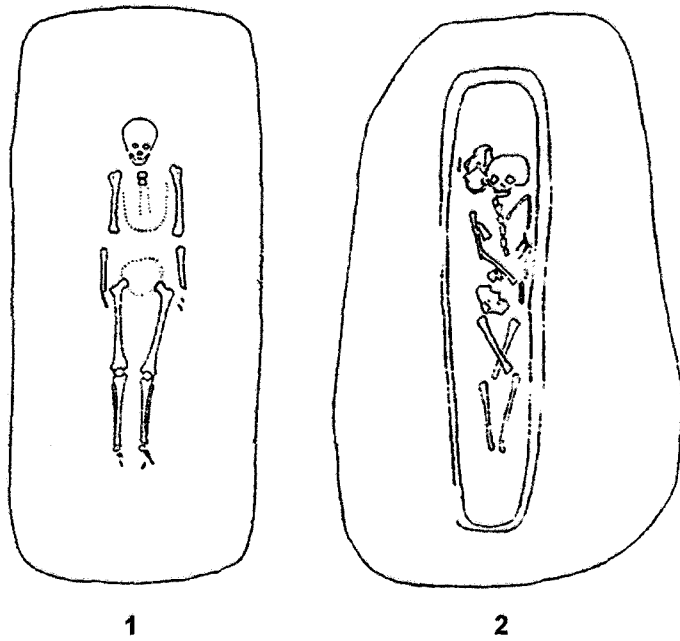


그림2. 대타두문화 무덤 그림(그림축적부동)  
1. 유리하M2 2. 이대인장M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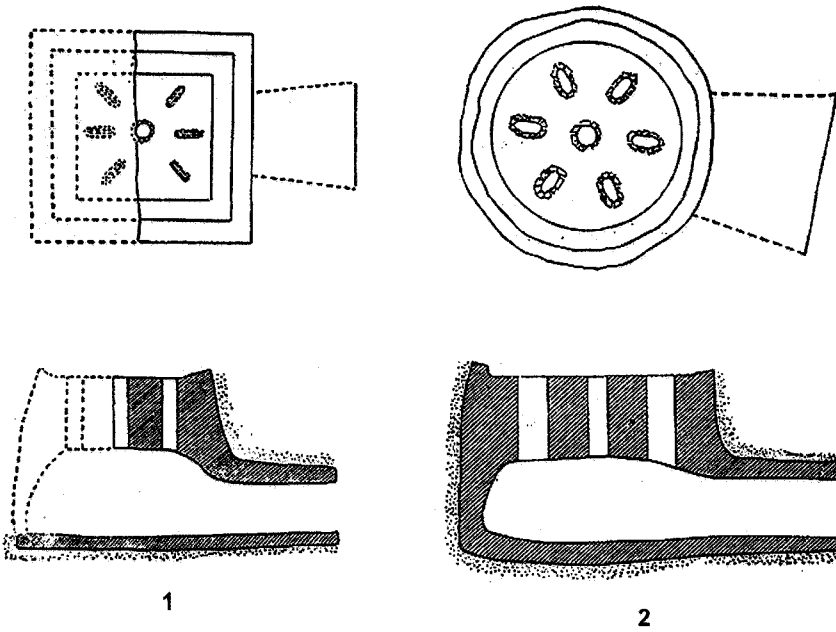


그림3. 대타두문화 질그릇 가마(그림축적부동)

1. 방형(당산 고야Y2) 2. 원형(당산 고야Y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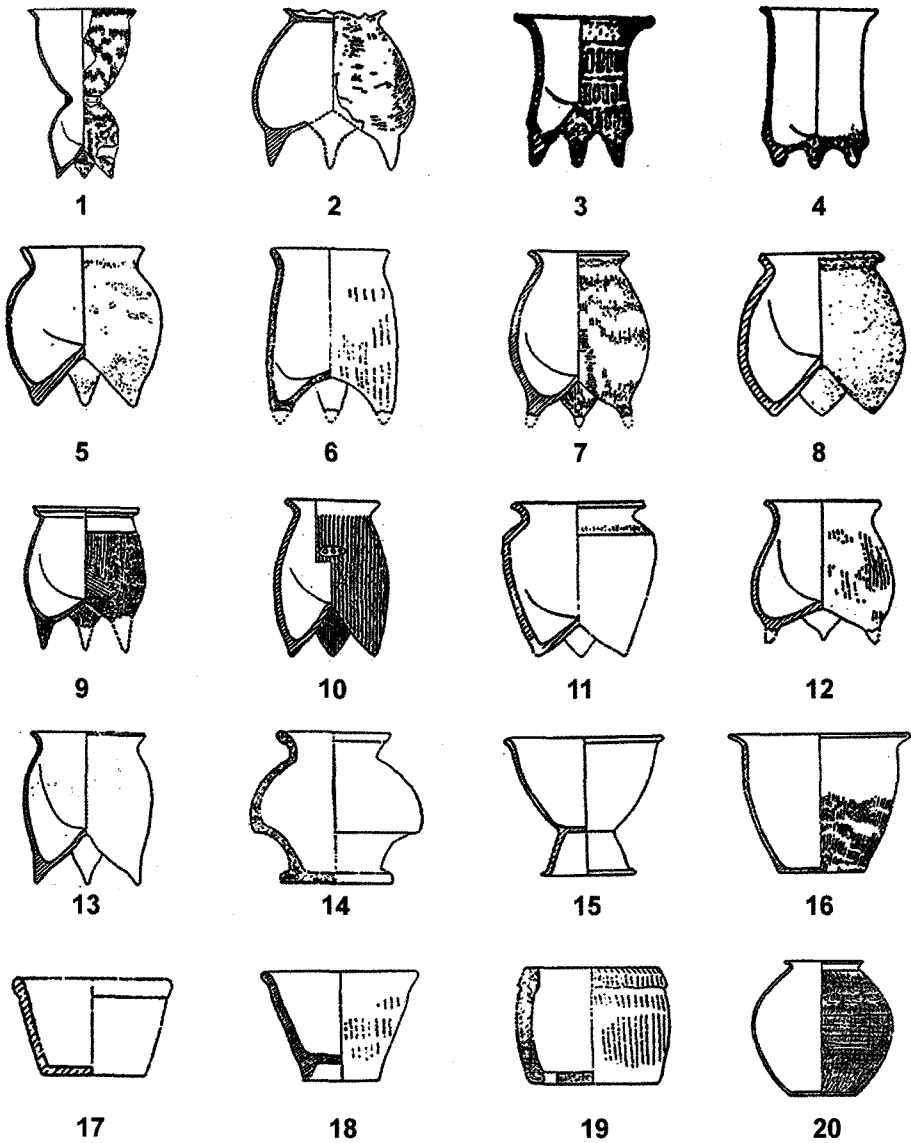


그림4. 대타두문화 질그릇(그림축적부동)

- 1-2. 시루술(1. 대타두H2:16 2. 하악각장H7:6) 3-13. 세가랑이술(3. 울현 산관M2008:1 4. 유리하M1:1  
 5. 유리하M1:2 6. 장가원T2④:1 7. 대타두H2:15 8. 대타두H1:6 9. 무위H8:1 10. 설산H66:228  
 11. 대타두H1:6 12. 하악각장H20:2 13. 설산H66:231) 14. 단지(장가원T2④:2) 15. 궤(유리하M1:3)  
 16. 자백이(대타두M2:17) 17. 보시기(대타두H2:21) 18. 보시기(장가원T4③:5)  
 19. 시루(장가원F1) 20. 향아리(하악각장H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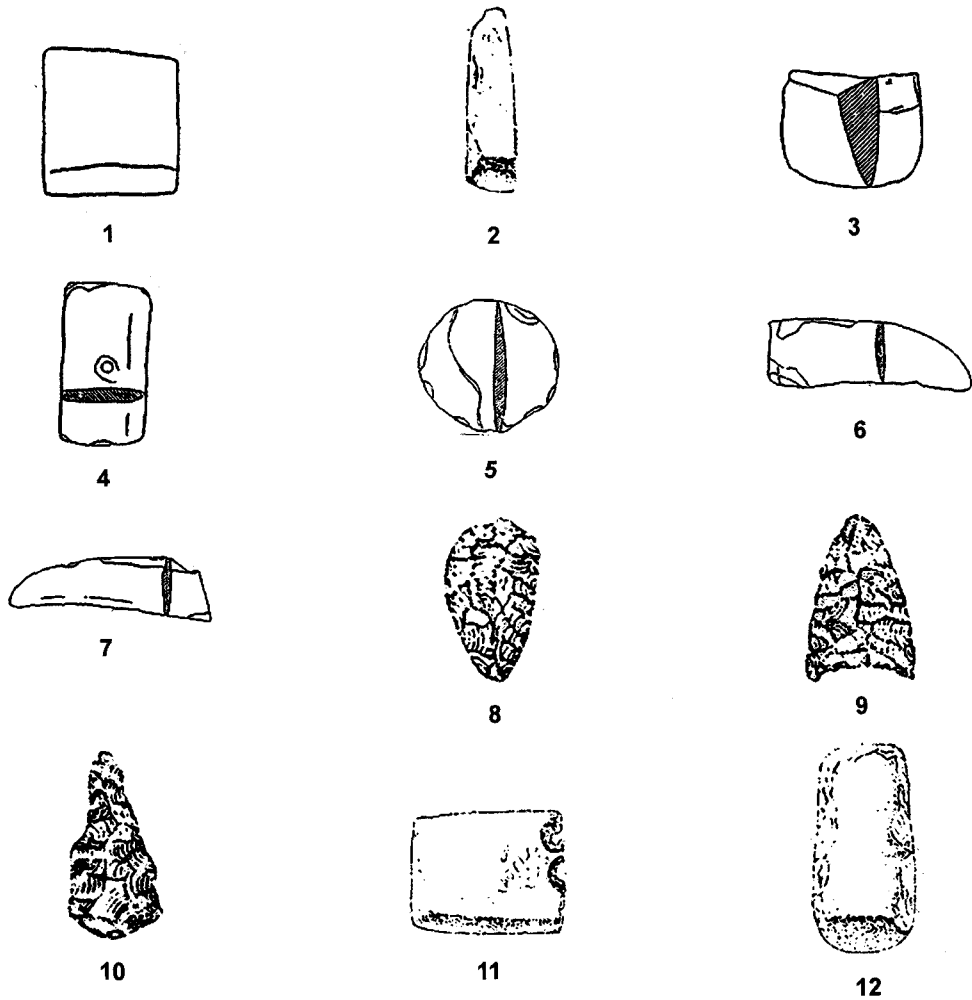


그림5. 대타두문화 돌연장(그림축적부동)

1. 자귀(하악각장H15:1) 2. 끌(대타두) 3. 도끼(하악각장H1:1) 4. 칼(하악각장H4:5)  
5. 환상기(하악각장H8:3) 6. 낫(하악각장H4:5) 7. 낫(하악각장H10:3) 8. 펜석기(대타두)  
9. 화살촉(대타두) 10. 찍개(대타두) 11. 칼(대타두) 12. 도끼(대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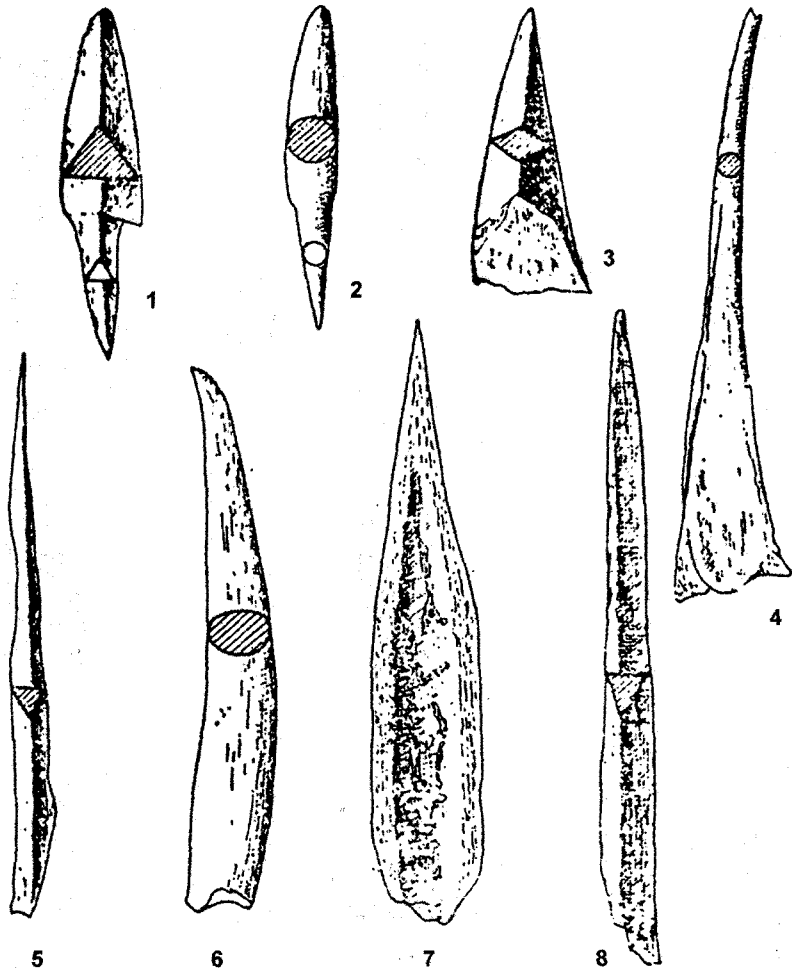


그림6. 대타두문화 뼈 연장 그림(그림축적부동)

1. 화살촉(동함각장T3②:40) 2. 화살촉(동함각장T2③:7) 3. 화살촉(동함각장T2③:8)
4. 송곳(동함각장T2②:2) 5. 송곳(동함각장T1②:1) 6. 송곳(동함각장T2②:5)
7. 뿔송곳(동함각장T3②:4) 8. 송곳(동함각장T3②: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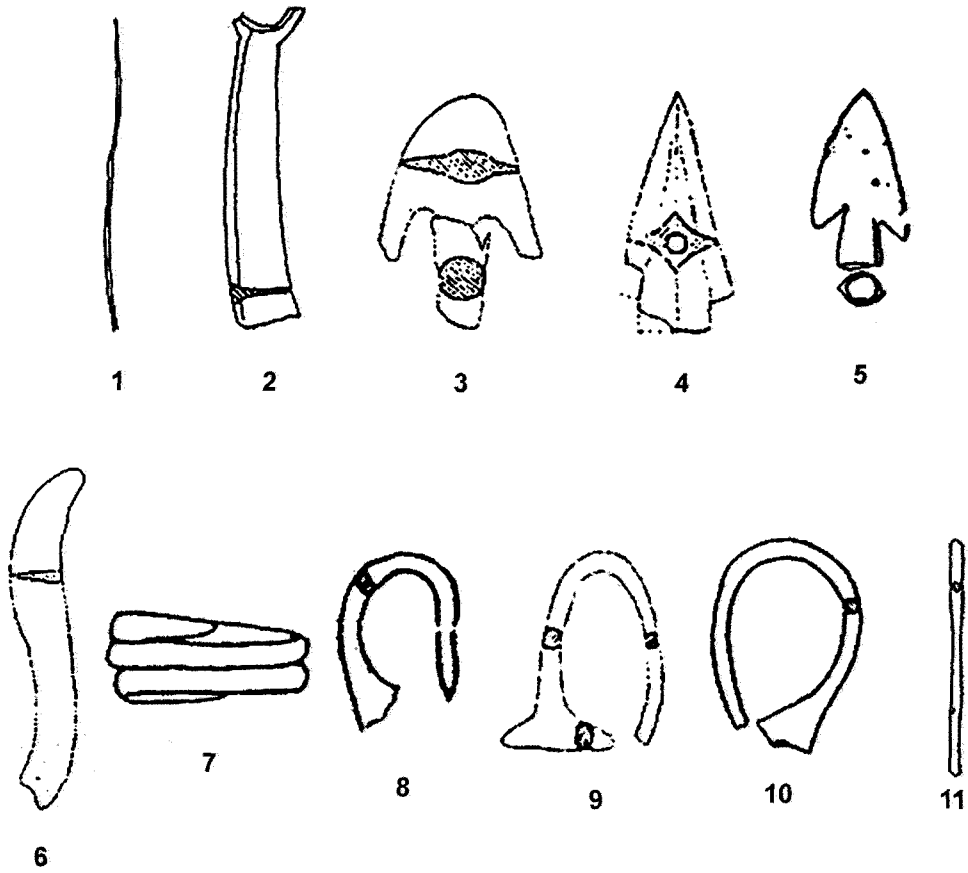


그림7. 대타두문화 청동기(그림축적부동)

1. 바늘(당산 고야T1④:31) 2. 동삭(당산 고야T10②:335) 3-5(3, 장가원T2④) 4. 장가원 F1  
 5. 하악각장H5:10) 6. 칼(장가원T2④) 7. 반지(유리하M2:2) 8-10. 귀걸이(8, 유리하M2:1)  
 9. 장가원F4 10. 하악각장(H5:13)